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서윤영 지음

건축 통해 본 우리의 세상

집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를 읽어내고 건축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책이 발견됐다. 건축칼럼니스트이자 광주일보에 '서윤영의 집과 사람'을 연재했던 서윤영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발간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개정증보판으로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저자는 시대의 거울이라는 주택의 변화와 남성보다 밀접하게 집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연연 중 소외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또한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그늘에 가려진 집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를 유혹하고 억압, 조종하는 건축물들의 비밀을 파헤친다.

'집으로 문화 읽기, 건축으로 세상 읽기'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책은 주거문화를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화현상으로 파악한다. <공리·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은 왜
김동춘 지음

한국 현대사 비판·재해석

역사 국정교과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가 역사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hell+조선 합성어)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작금의 한국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가 펴낸 '대한민국은 왜'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노정을 거슬러 오르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책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왔는가를 다룬다. 이를 통해 식민지의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선택하고 반공 세력이 경제성장에 목을 매게 되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 개설사라기보다 공식화된 한국 현대사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사계절·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메म्피스에서 맨해튼까지 ... 도시 문명의 진화

도시의 탄생

P.D. 스미스 지음



도시의 거리와 광장은 가장 생동감 넘치는 곳이다. 사람들이 성스러운 종교 집회를 위해서, 축제 퍼레이드를 위해서, 혹은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기 위해서 거리로 몰려든다.

도시의 거리와 광장은 시대의 흐름을 바꾼 기록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 혁명, 이집트 장기독재 붕괴, 체코사태로 불리는 프라하의 봄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메스컴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시위와 가두행진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33억 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불과 200년 전 3%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경이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7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고대 신들의 도시에서 미래 스마트형 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관한 모든 것

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가디언'과 '더 타임스'에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이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P. D. 스미스교수가 펴낸 '도시의 탄생'은 한마디로 도시 안내서이다.

다른 나라의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시티맵이 필요하듯 우리가 사는 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도시의 지형과 삶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펼쳐낸다. 하나는 고대부터 미래까지 도시의 발달사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생활과 문화를 다른 문명사에 초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8개 주제인 '도착', '역사', '변화', '거처', '산책', '소비', '여가', '미래'를 생동감 있게 풀어낸다. 어느 장을 펼쳐 읽어도 좋을 만큼 각 장 나름의 특징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의 출현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본다. 당시 '에리두'라는 도시를 처음 만든 수메르인들은 90%가 이곳에서 거주했다. 그들은 흙벽돌로 최초 도시 건설이라는 인공환경을 만들어냈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명의 토대를 여기에서 찾는다.

도시 공동체의 발전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부족과 씨족의 봉건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서 오늘의 맨해튼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갖춰야 할 환경은



도시의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상으로 꼽힌다. 사진은 윌리스 타워에서 바라본 시카고. <옥당 제공>

출중한 인재들을 끌어 모았다.

도시 번창의 또 다른 요인은 거주자들에게 일자리와 부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사회적 문화적 삶이 가능했다. 초기 거주자들은 오늘날 도시 거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유형의 삶을 살았다.

이후 인류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왔다. 아메리카 대륙 최초 대도시 테오티우아칸, 르네상스 시대

의 이상도시 스포르진다, 홍콩의 성곽도시, 계획 하에 지어진 신도시, 고층건물로 대변되는 수직도시, 송도국제도시로 대변되는 스마트도시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왔다.

저자는 미래 도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의 토대가 되는 친환경에너지 버섯, 고층 건물의 층마다 농장을 들인 수직농장 등도 소개한다.

"도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공간은 인류가 발휘하는 창의적인 원천이다. 가장 위대한 도시에서 인류 문명의 꽃인 과학과 예술의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그런 이유로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이며 잘 관리되는 도시는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다."

<옥당·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구리·아연·니켈... '희토류'의 어두운 진실 파헤쳐



금속전쟁
키스 베로니즈 지음

우리 일상과 친숙하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금속이다. 그러나 삶에서 금속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힘들 정도로 중요하다. 건물의 골격인 철, 캔을료의 알루미늄, 동전의 니켈과 구리, 장신구의 금이나 은 등 금속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한다.

미국 앨라배마 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받고 주요 잡지에 과학 기사를 쓰

고 있는 키스 베로니즈가 금속의 모든 것을 다룬 '금속전쟁'을 펴냈다. 현대는 가전제품, 의류기기, 나아가 방위산업체 분야의 발전으로 금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첨단 기계들은 갈수록 작고, 얇고, 가볍고, 빠르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진화해간다. 이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희토류 금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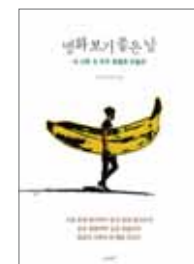
저자는 희토류 금속의 독특한 화학적 성질뿐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노력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진실을 파헤친다. 희토류 금속에 대한 오해는 '희(稀), rare'가 붙어 있어 찾기 힘든 금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요가 높은 데 비해 정제하고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을 말한다. 구리, 아연, 니켈, 코발트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희토류 금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집하는 데서 발생한다. 저자는 폐기전 제품에서 소량의 희토류 금속을 찾아 생계를 유지하는 제3세계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값싼 전자기 제품의 자급률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숨은 촉매가 된다고 본다.

희토류 금속은 위험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이 유한한 자원을 위해 우주로 눈을 돌린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면서 미래의 자원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누가 천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

<반니·1만 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현대미술·공공미술도 만나 보세요



명화 보기 좋은 날
이소영 지음

"마음이 피곤한 날, 열정을 찾고 싶은 날, 누군가 그리운 날, 자신감이 필요한 날, 혼자 있고 싶은 날, 사랑하고 싶은 날, 감성을 키우고 싶은 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명화 보기 좋은 날입니다."

전작 '출근길 명화 한 점'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네이버 포스트 인기 작가인 '빅쏘' 이소영이 두 번째

이야기 '명화 보기 좋은 날'을 펴냈다. 미술 교육가, 전시 해설가이자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전작에서처럼 독자들에게 명화가 더 가깝고 친근하고 낮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미술사나 그림에 얽힌 어려운 함의를 내려놓고 쉽게 써내려갔다. 전작이 서양의 회화 위주였다면 이번 책에서는 현재 왕성하게 활동중인 한국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자리잡은 공공 미술까지 다루고 있어 다채롭다. "예술이 멀고 어렵다고 핀잔하지 말자"는 저자는 마음만 먹으면 단 한 권의 책으로도 전 세계의 미술관에 다녀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슬로라빗·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